영유아기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관련성

박 지 선 · 박 성 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 아동학부

= Abstract =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Parent's Rol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and Parental Involvement of Young Children's Father

Ji Sun Park · Sung Hee Park

Woo-Song University of Health Welfare, School of Social & Child Welfar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over conception about parent's perception of rol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parental involvement about young children's father.

Methods: In order to find the results, We carried out a survey on 435 young children's father in Seoul, Chungcheongnam-do, and Jeollanam-do. The statistical processing was done with using the SPSS 21.0 and AMOS 21.0.

Result: The first result of the study show that perception of parent's rol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of young children's father were little higher than average but parental involvement of young children's father were a lot lower than average. The second result of the study show that perception of parent's role had no direct effect on parental involvement and taken mediate effect for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Conclusion: we have learned that young children's father relatively highly recognized on perception of parent's rol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but parental involvement of young children's father lowed. For support on parental involvement of young children's father, continuedly and structural parent education were based on perception of parent's role and positive perception.

Key Words: father's parenting, perception of parent's rol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parental involvem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아버지라는 이름은 기존과는 다른 의미로 재창조되고 있다. 자녀 양육의 전면에 나서는 아버지들을 지칭하는 프렌디(Freindy=Friend+Daddy)라는

교신저자: 박성희, 대전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관 312호
전화번호: 042-630-9834, 팩스번호: 042-630-9829
E-mail: pit-pat@hanmail.net
원고접수: 2014년 12월 12일, 원고심사: 2015년 1월 14일
원고채택: 2015년 1월 20일

신조어가 사용 될 만큼(Na, 2013),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결핍 패러다임에서 접근해왔던 아버지의 역할 수행은(Yang & Jo, 2000) 과거의 도구적 역할에서 자녀의 일상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Flouri, 2005).

이렇듯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들은 양육에 참여하기보다는 책임감만 크게 느끼고(Lee, 2008), 부모로서의 불안, 좌절, 효능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Song & Song, 2009). 또한 여전히 좋은 아버지는 좋은 생계부양자일 때 가능하다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Marks & Palkovitz, 2004) 문화적 혼란과 양육 참여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의 부족은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New Father의 상을 구축하는데 어려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Featferstone, 2009).

아버지가 부모역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Son & Yoon, 2011). Kotre와 Hall (1990)은 아버지의 역할을 생물학적, 사회적, 부모로서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부모로서의 생산성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Yang과 Jo (2000)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능동적으로 돌보고 활발한 인간관계를 맺는 양육 참여 모델로서 양육생산성으로 설명하였다. 양육생산성은 자녀의 발달과정을 능동적으로 돌보아주는 것으로(Snarey, 1993)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im & Kim, 2007) 자녀관과 양육태도를 규정한다는(Kang, 2000) 측면에서 양육긍정감 또한 양육참여를 이끌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가 자녀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의 복지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부모 역할하기와 관리하기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Chung et al.,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나 요구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Park et al., 2013). 둘째,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Pruett, 2000; Fagan & Falm, 2002). 셋째,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아버지 자신의 성장과 행복, 새로운 자아 발견이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Schindler, 2010). 즉,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자녀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안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연령, 직업과 근무환경, 부부관계 만족도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참여 정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Eisenberg et al., 2003; Lee & Choi, 2009).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Choi & Song, 2014; Han & Moon, 2014; Seo & Lee,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의 상호 연관성에(Kim & Lee, 2014; Noh, 2014; Yoon & Sung, 2014) 치중하여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해 갖는 실제적 태도와 책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Lee & Lee, 2007)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인구학적 배경을 제외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으나(Jo & Park, 2013; Hwang & Hwang, 2014) 아직 그 수가 적으며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했던 Kim과 Jang (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 변인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각 변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각 변인들이 양육참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접적인 보고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과 양육긍정감이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버지들의 양육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및 양육긍정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통해 서울, 충남, 전남 지역에 위치한 15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의 아버지 435명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총 1,2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739부(59.1%)가 회수되었고, 이 중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435부(58.9%)를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부모역할인식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Aoki와 Iwatate (2005)가 개발한 '부모역할척도'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역할인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로 검토한 결과, 6문항 1요인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omparative Fitness of Index (CFI)가 0.967,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RMSEA)가 0.095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도 0.860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 척도는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척도로 판단하였다.

2) 양육긍정감

아버지의 양육긍정감은 Park 등(2009)이 사용한 '양육긍정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자기성장감 4문항, 자녀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감정 7문항, 육아계속의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0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3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긍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로 검토한 결과, 3요인 2차 요인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가 0.953, RMSEA가 0.076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자기성장감 0.804, 자녀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 감정 0.911, 육아계속의지 0.894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0.932로 양호한 수치를 보여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척도로 판단하였다.

3)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작성된 Park 등(2011)의 '양육참가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 하지 않는다.'에서 '4점: 매일·매회하고 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참여 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로 검토한 결과, 1요인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CFI가 0.928, RMSEA가 0.091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도 0.871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 척도는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척도로 판단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자녀수, 가족구성, 최종학력, 직업, 일주일평균노동시간으로 살펴보았다.

4. 자료수집방법

서울, 충남, 전남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각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 비밀보장 및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설문지와 함께 각 가정에 배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동의한 가정에서 설문지를 다시 해당 어린이집에 회신하도록 하여 각 어린이집 대표자를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응답분포를 파악하고자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둘째,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 등 각각의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부모역할인식 양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또는 양육긍정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성 및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모형의 추정법은 ML법을 채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df)을 비롯하여 절대적합도 지표인 RMSEA

와 상대적합도 지표인 CFI 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 이상, RMSEA는 0.08 이하이면 그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Yamamoto & Onodera, 2001). 분석모형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뺀 값(이하 t값)의 절대 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을 나타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Peek, 2000).

성 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6.4세(표준편차 4.0, 범위 25~49세)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35명(77.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85명(19.5%), '20대'가 15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두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277명(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가 374명(86.0%)으로 2세대 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151명(34.7%), '4년제 대학교 졸업' 141명(32.4%), '전문대 졸업' 108명(24.8%)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직업은 절반 이상이 '회사원(255명, 58.7%)'이었고, 그 외에 '자영업'이 79명(18.1%), '공무원'이 33명(7.6%)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20명(4.6%)으로 가장 적었다. 아버지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5일(표준편차 0.7, 범위 2~7일)로 나타났다(Table 1).

2.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 점수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총점은 4점~18점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균 14.5점으로 나타났다. 양육긍정감은 0점~42점의 분포였으며 평균은 33.8점이었다. 양육참여 점수는 0점~40점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16.8점이었다.

관계를 보였다(Table 2).

3.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상관관계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참여는 부모역할인식($r=0.156$, $p<0.001$), 양육긍정감($r=0.26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양육긍정감은 부모역할인식($r=0.555$, $p<0.001$)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

4.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과 양육긍정감을 독립변수, 양육참여를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해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35)

Variables	Category	N (%)	Mean±SD
Age (yrs)	≤29	15 (3.4)	36.4±4.0 (range: 25~49)
	30~39	335 (77.0)	
	40≤	85 (19.5)	
The number of children	One	86 (19.8)	277 (63.7)
	Two	277 (63.7)	
	Three or more	72 (16.5)	
Family structure	Nuclear	374 (86.0)	58 (13.4)
	Extended	58 (13.4)	
	Others	3 (0.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3 (0.7)	151 (34.7)
	High school graduate	151 (34.7)	
	College graduate	108 (24.8)	
	University graduate	141 (32.4)	
	Graduate or more	32 (7.4)	
Job	Office worker	255 (58.7)	33 (7.6)
	Official	33 (7.6)	
	Business owners	79 (18.1)	
	Professions	20 (4.6)	
	Others (part-time work)	47 (10.8)	
	Inoccupation	1 (0.2)	
Average hours worked per week			5.5±0.7 (range: 2~7)
Perception of parent's role			14.5±3.0 (range: 4~18)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33.8±6.4 (range: 0~42)
Parental involvement			16.8±7.9 (range: 0~40)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n=435)

	Perception of parent's rol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Parental involvement
Perception of parent's role	1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ing	0.555***	1	
Parental involvement	0.156***	0.262**	1

p<0.01, *p<0.001.

검토하였다. 먼저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chi^2=1,039.347$, $df=453$, $CFI=0.918$, $RMSEA=0.055$ 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역할인식에서 양육참여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038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역할인식에서 양육긍정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612 , 양육긍정감에서 양육참여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223 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이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양육긍정감을 통해 양육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감이 높아져 양육에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고 찰

본 연구에서 확인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은 평균 14.5 ± 3 (도구범위: 4~18), 양육긍정감은 33.8 ± 6.4 (도구범위: 0~42)로 중간보다 높았으며 양육참여

는 16.8 ± 7.9 (도구범위: 0~40)로 중간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한 남자로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나(Kim, 2005), 자녀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Lee & Lee, 2007)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이 양육을 선택이 아닌 수용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비교적 적극적이나 직접 참여 행동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는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과 양육긍정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달랐다.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은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며, 양육긍정감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양육긍정감은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은 양육긍정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지각하는 부모의 역할인식과(Kang, 2000), 양육효능감이 양육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Dorsey et al., 1999)를 지지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모 역할

Fig. 1. Influencing factors for parental involvement of father's (n=435).

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다고 하여 양육참여에 적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감으로 이어져야만 양육에 참여하는 빈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은 과거의 아버지들보다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사회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Gray & Anderson, 2010).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당위만으로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이끌 수 없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양육긍정감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Lee와 Lee (2007)는 부모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일 자녀와의 공유시간을 설명하면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양육 경험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긍정감을 높일 수 있다(Lee,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 개인과 자녀, 가정,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아버지의 양육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부모역할인식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교육의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 양육참여의 상관과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서울, 충남, 전남 지역의 어린이집 재원생의 아버지 43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법을 실시하여 SPSS 21.0과 AMOS 21.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인식, 양육긍정감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양육참여 점수는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역할인식과 양육긍정감과 같은 인식은 양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양육긍정감이 부모역할인식과 양육참여의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실제적인 양육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인식을 바탕으로 양육긍정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Aoki S. Iwatate K. Determinants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care;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belief. Bulletin of Tokyo gakugei university. series I, science of education 2005;56:79-85
- Choi MS. Song SO. The effects of the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according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e study Korean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2014;15:313-332
- Chung MR. Yee BS. Park SK.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oddler's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the child education 2013;17:449-469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9;61:295-305
- Eisenberg N. Zhou Q. Losoya SH. Fabes RA. Shepard SA. The relations of parenting, effortful control and ego control to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ity. Child development 2003;74:875-895
- Fagan J. Palm G. Fathers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NY: Dalmir learning 2002
- Flouri E. Fathering & Child outcomes. WS: John Wiley & Sons 2005
- Featherstone B. Contemporary Fathering: Theory, policy and practice. Bristol: Policy Press 2009
- Gray PB. Anderson KG. Fatherhood: evolution and human parental behavior.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Han NR. Moon HJ. The effect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home environment on children's learning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14;9:25-49
- Hwang SS. Hwang HS.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involvement. Journal of the society for

-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2014;5: 71-93
- Jo HY, Park SY. The role of fathers' experienced parent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edicting fathering attitudes to their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3;34: 59-74
- Kang RH. The current trend in the studies of the role of the father: analysis on Americ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0;38:49-69
- Kim EY, Lee JY.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nd the father's parenting support on the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4;32:167-180
- Kim JJ, Kim YM.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ing practices,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7;50:113-137
- Kim JH. Role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in the fa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5; 23:113-123.
- Kim NH, Jang SJ. A study on child-Rearing attitudes, involvement levels, and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s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2;16: 121-128
- Kotre J, Hall E. Seasons of life: Our dramatic journey from birth to death. Boston: Little, Brown 1990
- Lee JY.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gatekee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s parenting competence and paternal invol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8
- Lee SJ, Lee YH. A study on fathers' perception to involve in child-rearing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7;13:1-17
- Lee YH.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measuring mother and father shared caregiving.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08;12:189-210
- Lee ES, Choi HY. Effects of father's rearing involvement and spousal support on perceived parent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9;47:13-22
- Marks L. & Palkovitz R. American Fatherhood: dis-courses and experiences. London: SAGE 2004
- Na SE. Gender hierarchy in fathers' care and the construction of neo-instrumental fatherhood: focusing on the middle-class and dual-earner families. Family and culture 2014;26:1-39
- Noh S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thers' self-Efficacy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involvement.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and care 2014;14:45-59
- Park CY, Kim NH, Ku SY, Lee OI, Noh HY, Lee SY et al. Development & evaluation of early education program. Seoul: Jungminsa 2013
- Park JS, Kirino M, Miwa E, Kim JS, Nakajima K et 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 maltreatment of mother in South Korea, East Asian studies 2009;51:17-25
- Park JS, Ryu HS, Kim JS, Yoon JS, Park CM et 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childcare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thers with an infa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1;20:521-532
- Peek MK.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 application in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00;79:301-309
- Pruitt KD. Father 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Y: Free 2000
- Seo SW, Lee DK.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mother's social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4; 18:135-158
- Schindler HS.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nd financial contribution in promoting father's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10;72:318-332
- Snarey J.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four-decade stud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Son YB, Yoon KY. The effects of fathers' role perceptio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gives o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1;3:105-126
- Song JS, Song JY. A study on parenting competence, spousal support, and child rearing str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9;14:186-205

Yamamoto K. Onodera T.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nd analysis case by Amos, Nakanishi publication. Tokyo : Nakanishi shuppan 2001

Yang MK. Jo BH. Generative fathering on erikson's perspective and its relationship with attachment security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0:38:57-64

Yoon SH. Sung JH.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the role of mothers' perception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4: 35:192-222

K C I